

생명의 삶 + Plus

나눔식 소그룹

- 01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시 24:1~10)
- 02 고난이 주는 유익, 위로(고후 1:1~11)
- 03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고후 3:1~11)
- 04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고후 6:14~7:1)
- 05 소명을 따라 진전하는 삶(고후 10:12~18)

알려드립니다

나눔식 소그룹 매뉴얼은 금요일을 기준으로 그 주간의 주일 ~목요일 중 하루의 본문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생명의 삶』과 같은 본문으로 되어 있으며 『생명의 삶+PLUS』에서는 지도자들을 위한 해설을 추가해서 실고 있습니다. 교회별로 소그룹 모임에서 『생명의 삶』을 교재로 삼고 『생명의 삶+PLUS』의 소그룹 매뉴얼을 강의안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책에 실린 지도자를 위한 해설은 『생명의 삶』 홈페이지(www.duranno.com/qd)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24:1~10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 찬양하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새 67, Ab→G) 문들아 머리 들어라 (경배와 찬양, G)

Focus |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성도는 먼저 올바른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유럽 여행을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을 관광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 중의 하나는 버킹검 궁 투어일 것입니다. 투어 중에서도 궁전 근위대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서둘러 옮겨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교대식이 진행되는 너머로 버킹검 궁이 보이는데 궁의 정중앙에는 영국 왕실의 깃발이 게양되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깃발이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시가 되면 버킹검 궁에 근무할 근위병들은 군악대의 음악에 맞춰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위병들은 교대할 근위병들과 특별한 의식과 같은 몸동작을 반복하며 교대식은 진행됩니다. 관광객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대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모여듭니다. 근위병들의 몸동작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같이 절도가 있고, 시선,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곰 털로 만든 털모자와 붉은 망토가 주는 느낌은 이들의 의식이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들의 진지함과 자신감 넘치는 동작들은 궁 안에 있는 여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 집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시편 24:1~10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유다를 다스릴 때 거점으로 삼았던 헤브론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예루살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나머지 족속 사이의 중립적이고 유대의 중심부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다윗

은 예루살렘을 정치적 중심지뿐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율법에 나온 방법대로 하지 않고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합니다(삼하 6:3). 이렇게 이동하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 궤가 땅에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이 일로 웃사는 그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웃사 사건이 있은 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임시적으로 법궤를 오벧에돔의 집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는 레위기에서 정한 규례를 지켜 옮겨옵니다.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일을 진행했는지 여섯 걸음 걸을 때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열렬히 춤을 추며 법궤가 예루살렘성에 도착한 것을 기뻐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자신의 실수로 옮겨오는 것을 잠시 멈춰야 했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이런 배경 속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관찰과 묵상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와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며, 이들이 얻게 될 것은 무엇인가요?(3~5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해설 시편 24편은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세제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1절)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건축가로 묘사합니다. 2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야싸다흐’는 ‘터를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야싸드’인데 ‘기초를 놓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터를 바다와 강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마치 건축가가 건물의 기초를 놓는 장면처럼 그립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맞췄던 시선을 인간에게로 돌립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들은 ‘여호와와 산’, ‘거룩한 곳’(3절)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여호위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곳에 누가 설 것인지 질문합니다. ‘오를 자’, ‘설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이며, 예배드릴 자의 조건을 ‘손이 깨끗한 자’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즉, 산에 오르는 백성의 행동과 마음의 자격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는 사람은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외적 행위와 내적 생각을 점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이 시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궐을 가지고 오는 일에 악한 생각이나 의도가 개입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궐 운반에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언약궐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꿈에 그리던 장면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분위기는 축제이고 그로부터 환희와 감격에 찬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와 감격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3절) 즉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점하게 됩니다.

관찰과 묵상 2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나요?(7~10절)

영광의 왕이요,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해설 ‘문들아’에서 ‘문’은 성소의 문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후 다윗이 법궐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온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삼하 6장). 그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에 불렀던 찬양인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왕 시대에 웃사의 일로 바로 가져오지 못한 언약궐을 오벤에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묘사합니다. 언약궐을 맞이하는 성문들에게 ‘머리’가 있는 것처럼 의인화하며 왕이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머리를 쳐들고 환영하라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문들로 들어가는 분을 ‘영광의 왕’(9절)으로 묘사합니다. ‘영광의’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 ‘학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카보드’입니다. 이는 ‘위엄’, ‘존귀’, ‘영예’를 뜻하며, 존귀와 위엄이 가득한 왕,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는 질문의 답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입니다. 시인은 이어 질문과 답을 반복하며 하늘의 모든 권세와 위엄을 가지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로 표현된 ‘체오바트’는 세상의 모든 군대, 또는 군사력을 한 손에 쥐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땅의 보이는 군대뿐 아니라 하늘의 보이지 않는 군대를 동원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적용과 나눔 내 삶의 자리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일들을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를 들어서 보아야 할 장면은 환희에 차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을 신약에서 찾는다면 아마도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쁨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라고 고백한 욥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인은 강하고 전쟁에 능한, 만군을 다스리시는 여호

와의 승리를 바로 나의 승리로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커다란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분의 강하심을 보여 주신 것같이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행실의 정결함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다지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성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영혼 가운데 영광의 왕이 임성해 거하시도록 마음의 왕좌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과 행실을 살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마 6:24),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해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성 안에 올려 퍼진 승리의 감격, 그 함성과 경이로움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도록
- 영광의 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예배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며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2.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도인 이집트에서 성경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접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다 (셀라)” 시 24:9~10



고린도후서 1:1~11

고난이 주는 유익, 위로

하나님 찬양하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 337, D)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경배와 찬양, E→D)

Focus |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마음열기 🍁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도 다양해서 세상의 변화, 즉 시대가 변화해 감에 따라 고난이 있기도 하고, 개인의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려고 나오는 책들은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상처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영국 격언에 '상처는 별이 되다'(Scar into Star)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건강하게 상처를 극복했다면 마음 한켠에 훈장과 같은 별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옌은 그의 저서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입은 자가 그 상처를 극복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별이 되지는 않으며, 상처를 회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를 치유할 자격을 얻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처의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아픔을 스스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난과 상처가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말씀열기 🍁 본문 읽기 고린도후서 1:1~11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며 고린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에는 자신의 행동을 해명해야 하는 일들이 겹쳐 일어나는 상황에서 느낀 그의 아픔과 슬픔, 자신이 겪은 쓰라린 상처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먼저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으나 방문할 수 없었고 그 대신, 에베소로 간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마게

도냐를 거쳐서 오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려 하였으나 이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드로아를 거쳐 마케도냐로 가는 경로로 일정을 수정한 것입니다(행 20:1). 계획을 수정해서 간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상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이 여신을 믿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종교가 직업과 관련이 있는 일이고 이것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트리우스와 같은 은세공업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행 19장). 이 일로 복음 전파가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심한 고난(고후 1:8)이라 말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자신과 교회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나요?(3~4절)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해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한 후 ‘찬송하리로다’로 본론을 시작합니다(3절).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며 시작하는 시편과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기도할 때 표현하는 ‘자비의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비는 불쌍한 사람을 보며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동정’, ‘궁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이 위로는 단순히 편안하게 해 주는, 달래서 위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기분과 상황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현재의 태도를 새로운 방향과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라고 부르는데, ‘파라클레시스’(παράκλησις)라고 부르는 ‘위로’는 성령의 속성입니다. 바울이 모든 환난을 통해 체득한 것은 옆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많은 환난을 통과하였고, 이것을 통해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을 현재 교화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연결시킵니다(4절).

적용과 나눔 고난당할 때 나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나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수식으로 치장된 말이 아니어도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와 같은 고난을 지나고 그 고난을 자양분 삼아 성장한 사

람입니다. 그는 고난 앞에 당황하며 허둥대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며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앞에 선 자의 위로가 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고난 가운데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위로가 참되고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롬 14:8)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관찰과묵상 2 고난과 위로는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에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도록 권면했나요?(6~10절)

바울이 모든 환난에서 위로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고난 받는 교회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 하라고 말합니다.

해설 바울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환난에서 어떤 위로와 구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소망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견고하다' 말합니다(7절). 여기에서 소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엘피스'(ἐλπίς)는,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뜻의 엘피조(ἐλπίζω)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여기에 '견고하다'는 말로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롬 4:16)이나 하나님의 성품(고후 1:21)과 같이 확실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한 환난 중에 받은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도 유익을 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기대를 가지고 견디도록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예로 들어 독려합니다(8절). 여기에 '우리의 능력을 벗어났다'는 의미의 '힘에 겹도록'과 '초과하는' 혹은 '능가하는'이라는 의미의 '심한 고난'을 중첩해서 표현합니다. 상세하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고 그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9절)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9절)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게'(10절) 되었습니다.

적용과나눔 개인적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에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한 주간 중보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적용과나눔 포인트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세상의 모임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받고 있는 공동체를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공동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 안아주는 공동체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 다지기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심한 고통과 두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고난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문제에 몰두해 어디론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닻이 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되시고, 견딜 힘도 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견고히 하도록
- 믿음의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문제 앞에서 언제나 연약해지는 제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최첨단 보안 기술 확보, 기술 혁신이 포함된 연구 개발 체계가 마련되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 불교 왕국인 부탄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불교를 떠난 이들을 사회가 외면합니다. 부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고후 1:5



고린도후서 3:1~11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

하나님 찬양하기

사탄의 꽃 예수 (새 89, D)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경배와 찬양 D)

Focus |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음열기 🍃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문을 여세요.

인도자들 위한 예화 편지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내는 나와 사춘기 딸 사이의 오랜 갈등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편지를 권유해 왔습니다. 딸이나 지나 비슷한 성격이라 대화만 했다 하면 불꽃이 튀니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편지로 담아 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따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편지가 딸이 나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아버지의 눈물을 쏟아 놓게 했습니다. 말로 할 때는 제가 할 말을 하느라 급해 아이의 아픈 마음이 제 귀에까지 전달되지 않았는데, 아이의 편지를 읽다 보니 비로소 아이의 마음이 제 심장에 전달된 것입니다. “아,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사랑 하는 딸아, 나는 네 아빠고 너는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눈물을 담은 아빠의 편지는 또 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3년 정도 계속된 딸 아이의 사춘기 방향은 그렇게 해서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 박수웅, 『우리 결혼했어요』(두란노)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할 때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감동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열기 🍃 **본문 읽기** 고린도후서 3:1~11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고린도후서 배경에는 2차 전도 여행 시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의 복음 전파(행 18 장)와 유대인 대적자들로 인해 고린도를 떠난 후 편지(고린도전서)를 통해 가르침을 전한 바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디도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합니다. 글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 편지를 읽는 그들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추천서임을 고백합니다. ‘추천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쉬니스테미’는 ‘권’(~

와)과 ‘히스테미’(~위치에 서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가 전한 ‘복음과 함께 서 있다’는 의미로 추천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배후에는 바울에 대한 비난과 그에 대한 바울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다른 추천서나 율법의 조문이나 펜으로 쓴 증표보다 강력한 증표와 추천서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에 대한 진정한 추천서이며,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내시는 위로의 편지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묵상 **1** 바울 일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구인가요? 바울은 그 편지를 무엇으로, 어디에 썼나요?(2~3절)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일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으며,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해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가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지만, 또한 사도들의 섬김으로 쓰인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봉사와 수고를 통해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그들을 양육하고 목회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로 여겨졌고, 고린도 성도들을 돌보는 소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편지는 돌판이 아닌 파피루스에 쓰여 오갔을 것입니다. 이는 돌판을 율법 조문에 비유하고 마음 판과 대비하고자 가져온 표현입니다. 율법 조문은 그 자체로 기록하고 선포하고 의롭지만, 죄인인 성도에게 비출 때는 죄의 심판으로 인한 죄를 드러내게 할 뿐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4절).

예레미야 31장 33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 조문에 얽매어는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그가 교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새 언약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적용과나눔 한주간 나눈 대화 중에서 복음을 마음 판에 새기는 대화, 영혼을 살리는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나눔 포인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율법 조문처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종말과 심판은 결국 사망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규범이라는 잣대로 자신이나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 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새 언약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2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했나요?(6절) 율법 조문의 직분과 연결되는 구약 인물은 누구인가요?(7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을 받았던 모세와 비교해 설명합니다.

해설 바울은 사람들 안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 결과를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결과로 봅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렘 31:31)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옛 언약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새 언약이 세워진 상황에서도 계속 옛 언약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새 언약입니다. 바울은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라며 둘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옛 언약은 정죄로 끝나지만 새 언약은 의로 끝납니다. 율법은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새 언약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울은 모세가 옛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온 일꾼인 반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없어질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11절). 그리스도께서 참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옛 언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그분 사역에 동참하도록 내게 맡기신 의의 직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된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복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마 28:19~20).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음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

갔습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된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다지기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복음적 삶에 대한 사랑의 가르침과 나눔을 담았습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성장과 성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전한 편지 또한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새기는 사랑의 메시지야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매개자가 되어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 나의 섬김과 나눔이 율법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복된 직분을 제게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이루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세워진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이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기도합니다.
2. 중국에서 기독교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고후 3:3



고린도후서 6:14~7:1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하나님 찬양하기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292, G)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경배와 찬양, G)

Focus |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알프스의 몽블랑(Mont Blanc)이라는 산에 비가 내리고 빙하의 물이 녹으면 강물이 흘러 세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의 강줄기는 대서양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지중해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흑해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루는 산마루나 산맥을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분수령에 따라서 물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비롯해 '분수령'은 어떤 사건이 발전하는 전환점이 된 역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라는 분수령을 따라서 삶과 행동의 전환점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수령이 바로 삶의 가치관이 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방향의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이 보기에 착한 행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은 누구나 양심에 따라 추구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분수령, 즉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지금의 만족과 유익과 욕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쫓대를 향해 나아가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나의 민족과 유익을 포기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열기

본문 읽기 고린도후서 6:14~7:1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명하고(1~2장),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3~5장). 그의 첫 번째 변호의 마지막 단락인 본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과 화목하고, 불신자들과 깊게 지내지 말 것을 권

면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아텐(아테네)만큼이나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안에는 여섯 개의 헬라 신전과 신들을 위한 다섯 개의 전용 구역이 존재했으며, 집주인은 식당에 신들의 이름을 새긴 자리 12개를 만들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즐비한 도시에서 신전에 가지 않고 친구들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자와 명예를 매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표현으로, 소와 나귀의 겨리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규례(신 22:10)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려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금하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내용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바울은 믿지 않는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대비해 설명했나요?(14~16절)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자와 믿지 않는자, 성전과 우상을 대비하며 이것들이 서로 섞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해설 바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와 고린도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과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데, 소와 나귀에게 겨리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처럼(신 22:10) 서로 맞지 않는 짝을 한데 묶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불신자와 접촉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같이 멘다는 것은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똑같이 행동하거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와 불법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빛 속에 사는 사람과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역시 같은 명예를 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역시 함께 사귄 수 없습니다. 사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무가치함, 멸망'이라는 의미입니다(삿 19:22). 믿는자와 믿지 않는자는 서로 상관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에서 공유할 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전과 우상에 관해 말하는데, 여기서 우상은 우상 숭배자를, 성전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는 우상 숭배자와 일치하는 점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하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적용과 나눔 믿지 않는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내가 분리해야 할 것,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바울은 믿지 않는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자와 믿지 않는자가 추구하는 인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들과 하나님 나라

를 부정하는 이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일,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도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간혹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자의 선한 모습을 보고 본받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근거한 신앙과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한 삶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 자체가 아니라 선한 행실의 동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2 바울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며 구약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16~18절)

바울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16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17~18절)라는 예언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해설 바울은 구약성경을 인용해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이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45절, 레위기 26장 12절, 에스겔 37장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문구는 예레미야 31장을,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는 에스겔 20장 34절 말씀이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등장하는 새 언약에 관한 메시지들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새 언약을 받을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해 주며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온전히 이루어’, ‘깨끗하게 하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부정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17절).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고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나를 그분 자녀요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후 나는 어떤 면이 변화되었나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는 하나님 의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별하시고 친히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언약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권면과 같이 깨끗함을 입는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사랑의 실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품에 참여하는 일의 하

나로 율법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누릴 삶의 유익이 지켜야만 했던 의무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로 변화한 것입니다. 신앙과 경건 생활의 자발성과 감사,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새 언약 백성이 누리는 삶의 유익입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불의의 세계에서 의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서 빛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요, 우상의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고,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는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청년 중에서 취업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할 의지조차 없는 이른바 ‘니트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기도합니다.
2. 미국에는 기독교 콘텐츠를 활용한 전도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젊은이가 많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미국의 다음 세대 부흥이 이뤄지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후 6:16



고린도후서 10:12~18

소명을 따라 전진하는 삶

하나님 찬양하기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새 520, C) 내 안에 사는 이 (경배와 찬양 C)

Focus |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비록 세밀한 방향이 다를지라도 결국엔 북쪽을 향해 갑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아 항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북극성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주지않기도 합니다. 공동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며, 오해와 비난의 요소가 늘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상황이 인생의 종점이 아님을 기억하며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잠 16:9). 하나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격려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완주하며, 지나온 모든 길을 선하시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픔과 상처는 영적 재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걸어가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참으로 힘든 고난이었지만 지금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열기

본문 읽기 고린도후서 10:12~18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10~12장은 바울의 두 번째 변론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변론부터는 바울의 어조가 조금 변합니다. 이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울이 그의 대적자를 향해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직접 볼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바울

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8~9장)도 바울을 구설에 오르게 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헌금의 목적을 불순하게 생각해 바울을 비방하는 소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며,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것이고 바울의 자랑이자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고린도 성도들에게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13~14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고린도 성도들에게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과 대조하며 하나님 관점에서 그의 자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12절). 그것은 분수에 넘는 자랑이 아닙니다. ‘분수에 넘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메트로’ ‘측정할 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로 재어 나눈 것처럼 명확한 한계 안에서 정해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바울의 이방 전파의 정통성을 유념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재어 주신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고린도에 도착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복음으로 그곳에 간 사람이 없는 곳에 먼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은 바울이 남의 터전 위에 복음을 세우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14절), 성도들의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15절).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온갖 학벌과 인맥을 내세웠습니다. 바울은 이를 꼬집으며 자신은 세상의 기준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적용과 나눔 사역하다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의 소명을 확신하며 끝까지 감당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바울은 소명에 따라 고린도 성도들을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비난도 받았습니. 심지어 연보에 대한 논란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시험 가운데 이겨 나가도록 격려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이러한 굳은 의지와 마음을 허락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으며 살던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품고 사랑하게 하는 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관찰과 묵상 **2**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풍성해지길 소망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비전을 말했나요?(15~16절)

바울의 비전은 고린도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해설 바울은 본문에서 ‘넘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합니다. ‘한계를 넘지 않고’(13절), ‘지나쳐가다’(14절), ‘분수 이상의 것을 (넘치게) 하다’(15절) 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실추된 복음 전도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복음의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16절). 바울의 사역의 주요 목적은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의 복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바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이 과정을 지난 후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믿으며 더 큰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시대적으로는 로마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과 나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우리는 기도 제목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어떤 꿈과 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가 너무 크면 그 다음 비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더불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사도 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 로마에 가길 꿈꿨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그 땅을 전초기지 삼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를 넘어 서바나로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최종 목표는 서바나가 아닙니

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바라보는 비전은 다음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비전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혹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말씀 다지기 바울은 복음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과 헌신의 열매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자랑이나 목적을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어떤 오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이주민 자녀들이 열악한 보육과 교육 정책 속에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 줄 교사와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아프리카의 르완다는 종족 분쟁으로 대량 학살을 겪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도록 기도합니다(『생명의 삶』 181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고후 10:15